



광주·전남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지난 4일 김대중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상생 동행 협약 및 김대중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 <김대중 예비후보 측 제공>



이정선 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2일 5·18민주묘지 일원에서 열린 5·18기념마라톤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정선 예비후보 측 제공>



장관호(왼쪽)·정성훈 예비후보가 지난 4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 후보로의 단일화를 발표한 뒤 손을 잡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선거 '5파전' 압축

강숙영·김대중·이정선·장관호·최대욱
현직 2명·진보 후보 '2강 1중' 구도 재편
항공로 반환·사법 리스크 변수 떠올라
정책경쟁 실종 속 네거티브 공방 난무

6·3 지방선거가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초대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선거가 단일화와 합종연횡을 거치면서 5자 구도로 재편됐다. 5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강숙영 전 전남 교육청 장학관, 김대중 현 전남도교육감, 이정선 현 광주시교육감,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최대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가나다 순)이 초대 특별시교육감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원주 의사를 밝힌 강숙영 예비후보는 국가 책임 5일 돌봄학교, 전국 최초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4학년 학제 개편, 전남광주형 교육방송 설립 등 공약을 내세웠다. 김대중 예비후보는 문승태 전 순천대 부총장과 광주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에 참여했던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국장의 지지를 이끌어 내며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전남 동부권과 광주지역 기반을 넓혔다. 김 예비후보는 민주주의 교육 특별시, 학생에게 책임 교육 특별시, 인재양성 교육 특별시, 평생문화 교육 특별시 등 4대 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와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이정선 예비후보는 최근 김해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두갑 목포대 교수와 3자 단일화 경선에서 최종 승리했다. 단일화에서 패배한

김 전 교육장과 고 교수는 이정선 캠프의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상생 원팀'을 앞세워 지지세를 확장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전남·광주 교육 수준 상향 평준화와 AI·디지털 기반 맞춤형 인재 양성, 5·18 정신과 의(義) 교육 기반 인성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국가 책임 교육 강화 등 교육 대전환 6대 비전을 제시했다. 장관호 예비후보는 민주진보교육감 전남광주통합공천위원회가 지난 1·2일 이틀간 일반시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한 단일화 경선에서 정성훈 예비후보를 누르고 최종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장 예비후보는 아이의 하루를 바꾸는 교육, 학부모의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교직원에게 존중받는 학교 실현, 지역이 교육이 되는 전남·광주 구현 등 4대 교육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노마드'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최대욱 예비후보는 스승 존경·제자 사랑 회복, 제한적 훈육제도 도입, 학교야간보충·심화학습 운영을 통한 사교육 문제 해결 공약을 내걸었다. 이처럼 후보 군이 압축됨에 따라 정당 조직과의 연대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통합특별시장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당 당원들이 지난달 말부터 온라인 대화방에 특정 교육감 후보의 웹자보나 기사를 게시하며 지지활동에 나섰다. 이정선 예비후보는 최근 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에게 정책 연대를 제안했으며, 김대중 예비후보도 민 예비후보의 한예중 광주 이전 관련 법안 발의 기사를 게시하거나 민 후보와 찍은 사진들을 웹자보에 활용하

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후보들의 각종 리스크를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정책 경쟁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네거티브 공방 속에 김대중 예비후보는 최근 국외출장 중 호텔 카지노에 방문한 것에 대해 사과했으며, 과다 책정된 해외 항공료도 반환했다. 이정선 예비후보의 경우 자신의 고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지지세 결집을 위한 네거티브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후보별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계획, 교육 철학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유권자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선욱기자

민형배 "아동정책 패러다임 시민주권 방식 전환"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 간담회
"아동 권리 최우선 정책 설계" 약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5일 "아동 정책의 패러다임을 당사자와 시민이 직접 설계하는 시민주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후보는 이날 오전 선거사무소에서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서부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열어 "시민이 직접 정책을 구상하고 설계하면 행정은 이를 책임지고 뒷받침하는 '시민주권 정부'를 아동 분야에서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굿네이버스는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범죄 피해로 회복이 단절된 가정을 위한 공역 단위의 촘촘한 보호 체계와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거주지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누리는 보편적 권리 보장을 목표로 5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민 후보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부터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전달받은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약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기자

혁신당, 호남 기초단체장 후보 22명 공천

광주 1명·전남 13명·전북 8명 확정
전·현직 단체장·지방의원 대거 영입
조국, 민주당 호남 독점 구도 비판

조국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22명을 공천하며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섰다. 5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전남 광주 1명, 전남 13명, 전북 8명 등 총 22명의 호남권 기초단체장 후보를 확정했다. 광주에서는 김성한 전 광주 동구청장이 구청장 후보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전남에서는 곡성군수 박용두·담양군수 정철원·여수시장 명창환·나주시장 김덕수·장성군수 김왕근·함평군수 이운행·장흥군수 사순문·구례군수 이창호·영암군수 최영열·목포시장 박홍률·광양시장 박필순·영광군수 정원식·신안군수 김태성 후보 등 13명을 공천했다. 전북에서는 정읍시장 김민영·고창군수 유기상·익산시장 임형택·군산시장 이주현·임실군수 김왕중·부안군수 김성수·장수군수 장영수·남원시장 강동원 후보 등이 공천을 받았다. 이번 공천자 가운데 현직 기초단체장은 정철원 담양군수가 유일하다. 김성한 광주 동구청장 후보,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 장영수 장수군수 후보, 이운행 함평군수 후보,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 등은 전직 기초단체장 출신이다. 혁신당은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에서 전·현직 지방정치인을 대거 영입하며 기초단체장 선거 경쟁 구도 형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 2일 광주음약산업진흥센터에서 호남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조국 대표는 "국힘제로, 부패제로, 사회권 선진국 시동을 목표로 혁신의 바람으로 파란을 일으키겠다"며 "익숙함보다는 간절함을 보고 인물은 선택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후보 공천장 수여식에서도 민주당의 호남 독점 구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경쟁 의지를 드러냈다. /변은진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지난해 7월과 금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 1 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 적색신호이면 → 일시 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 녹색신호이면 → 서행
- 2 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면 → 일시 정지
 -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 3 번 신호등(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적색신호이면 → 정지
 - 녹색화살표 신호이면 → 서행

광주경찰청 | 전라남도경찰청 | 한국도로교통공단 |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